

海錦 吳達運 시의 현실적 경향 연구

박세인*

<차 례>

- I. 머리말
- II. 해금의 사상과 문학관
 - 1. 향촌 생활과 개혁적 의식
 - 2. 作爲를 거부하는 生氣의 문학
- III. 해금시의 현실적 경향
 - 1. 향촌 지식인의 소외 의식 표출
 - 2. 자연 경물의 사실적 제시
 - 3. 일상 체험의 구체적 형상화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시대 후기는 신분 분화의 촉진, 농업 생산력과 상품 경제의 발전, 실용주의적 학문과 민중의식의 성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졌다.

이 중에서도 특히 柳馨遠으로부터 시작되어 丁若鏞에게서 집대성된 실

* 전남대학교

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 곧 실학은 호남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유형원은 전북 부안에서 20여 년,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머물면서 그의 학문적 결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호남 지역은 지금까지 실학의 산실로서 주목받아 왔으며 그에 대한 연구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지역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학자들의 계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상적 궤적을 확인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의적 귀향이나 정치적 유배를 통해 이 지역으로 오게 된 몇몇 인사들에 의해 호남의 실학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활성화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작 실학을 태생시킨 기반인 호남 지역의 사회적 배경이나 학문적 분위기 등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말았다.

물론 유형원이나 정약용 등의 학문적 업적은 높이 사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이 지역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학문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801년 정약용이 유배 오기 전부터 호남 지역에는 吳達運(1700~1747), 申景濬(1712~1781), 魏伯珪(1727~1798), 黃胤鏞(1729~1791) 등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향촌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분명 정약용이나 北學派 등 近畿 실학자들과는 ‘다른’ 향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호남 지역이 실학의 산실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착 학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호남 지역 학문의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 경향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조선 후기 호남 지역 문장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쓰여진 글이다. 특히 오달운은 이들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초기의 인물로서 대부분의 삶을 해남과 나주에서 보낸 향촌 지식인이다. 이 글에서는 그가 재지적 기반이 약한 몰락한 양반

이며, 다른 어떤 외부 학맥과 관련을 맺지 않았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해금이 처한 이러한 지역적, 신분적 한계가 그의 개혁적 사상과 개성적 문학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해금의 문학관이 그의 한시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해금시를 통해 조선 후기 호남 지역 한문학의 현실주의적 한 경향을 조망해 보고자 했다.

II. 해금의 사상과 문학관

1. 향촌 생활과 개혁적 의식

오달운의 자는 伯通, 호는 海錦, 본관은 和順 同福이다. 오달운은 1700년(숙종 26) 3월 13일 해남군 흑석산 밑 청계면(현 계곡면) 용지리에서 圃庵公 吳始擢과 豊山崔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30세까지는 해남에서 살았으나, 30세 이후에 나주로 이거하였다. 해금의 가계가 해남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해금의 7대조인 吳彬이 상소를 올려 윤원형을 탄핵하다가 해남으로 귀양을 오면서부터이다. 오달운의 문집으로는 『海錦集』이 있으며, 여기에는 오언절구 25수, 오언율시 45수, 칠언절구 38수, 칠언율시 102수 등 총 210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이 외에 跋, 詞, 漫筆, 議, 記, 論 등 다양한 형식의 문장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해금집』은 오달운의 큰 손자인 孝彦이 제주도에서 刻字하여 목판을 완성하고, 셋째 손자인 滸彦이 1828년(순조 28)에 발간하였으며, 이 때 배포한 『해금집』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해금의 집안은 출사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지 못했고 그나마 이름을 남긴 사람은 오달운 정도이다. 그런데 오달운 역시 관료 생활과는 별 인연을 맺지 못했다. 40세 이전까지 해금은 鄉試에는 몇 번 합

격하였으나 大科에는 합격하지 못하다가, 41세(1740, 영조 16) 때 두 번의 監試에서 장원을 하고, 東堂試 論策에서 장원을 하였으며, 대과 會試에서 장원을 하여 한 해에 다섯 번 장원을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후 殿試에서 병과 급제하여 성균관 學諭, 승정원 사관 등을 거친 후, 1746년(영조 21) 다소 말직이라 할 수 있는 樊樹 察訪에 부임했다. 그러나 제수된 다음해(1747, 영조 22)에 都會의 시험관으로 나갔다가 더위에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결국 해금의 출사 기간은 7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과거에 급제한 해에 부친이 위독하여 1년여를 나주에서 머물렀고, 그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3년 동안 상을 치렀기 때문에 결국 관료로서 생활은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관료로서 해금의 생애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없으며, 『해금집』에 전하는 그의 문학과 사상 대부분은 해금의 향촌 생활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해금의 향촌 생활은 출사를 준비하며 개인적인 학문 탐구를 주로 했던 해남에서의 생활과 서당을 짓고 강학에 힘을 쏟은 나주의 생활로 나누어진다. 그가 호를 ‘해금’이라 한 것도 해남과 나주(금성)의 첫 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그런데 『해금집』에는 유년기나 청년기 때 해금에게 학문적인 영향을 미친 스승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10세 무렵에 영암에 임시로 머물던 찰방 金舜衡이 해금의 뛰어난 재주를 듣고 데려가서 수학시켰다는 기록이 『家狀』에 잠깐 언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해금은 특별한 스승 없이 家庭之學, 곧 집안에 대대로 이어져오는 가계의 학풍을 익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금의 부친이 회시에 응하지 않아 비록 출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19세 때 이미 향시에 장원했다는 것을 보면 유년기의 해금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해금이 교유한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그의 시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 중 해남에서 해금이 가까이 교유한 인물로는 李彦根(자:晦

甫), 蘇一渾(자: 凝天)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가깝게 지낼 뿐만 아니라 모두 문장이 뛰어나 吳蘇李라 부르며 주변의 칭송이 높았다. 특히 이 언근은 비록 출사는 하지 않았지만 詞賦와 大策은 당대 호남 선비 중에 맹주로 일컬어졌으며, 그의 문집인 『晚村集』에 실린 <御考策>은 호남 지방의 폐단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한 뛰어난 글로 평가받고 있다.

향시에 이미 네 번이나 합격하고도 대과에서 급제를 하지 못한 채 해금은 생활의 터전을 나주로 옮기게 된다. 몇 번의 낙방을 경험하면서 그는 경전 위주의 공부에서 음양오행의 묘리, 兵家, 山經, 地誌, 數學, 律呂, 卜書 등 보다 실용적인 영역으로 학문적 관심을 넓혀 간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학문 탐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당을 세워 후진을 가르침으로써 지방의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¹⁾

한편, 향촌에서 해금의 재지적 기반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여 항상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그가 생활의 궁핍함을 생생히 토로하고 있는 <客憂賦>²⁾를 살펴보면, 그 자신이 스스로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어야 했으며, 이웃집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야 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곡식마저 떨어지면 가까이 사는 부유한 이웃에게 가족들의 끼니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러니 늙은 부친에게 깨끗한 옷 한 벌 헤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굶지 않고 한 해를 넘기는 것을 감사해야 했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과 몇 대째 관료를 배출하지 못하고 오랜 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해금의 향촌 경험은 그의 관료 생활을 참으로 고단하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향촌의 개혁적인 인사와의 교류,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해금의 향촌 경험은 해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신

1) 『家狀』, 『國譯 海錦吳達運文集』(울지출판공사, 1993) 참조(이하 『국역 해금오달운문집』은 『해금집』이라 약칭하며, 『해금집』 수록 내용의 번역은 이 국역본을 따른다).

2) <客憂賦>, 『詞賦』, 『해금집』 卷2.

분에 대한 자각과 함께 당시의 제도적 모순에 관심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 당시 국정에 대한 폐단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公道會議>³⁾, <問均賦>⁴⁾, 「王霸略」⁵⁾, 「湖南策」⁶⁾ 등과 같은 글을 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도회의>는 매년 지방 관청에서 열리는 과거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여기서 해금은 공도회가 농사로 한창 바쁠 때인 6월에 열려 농촌의 일손을 부족하므로 농사에 크게 방해가 되며, 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선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하고 그 시기를 조정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균여부>는 1740년 增廣 初試에서 장원한 책문으로, 농지의 세금을 균등하게 부여하는 과제에 대해 대답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물산이 풍부하지만 훌륭한 군주와 어진 신하의 올바른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괴로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법으로 어진 신하를 등용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왕패략」에서는 국가의 선정을 일으킬 수 있는 아홉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호남책」에서는 당시 호남 행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7조목의 대처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해금이 제시한 이러한 대처 방안들은 우선 그의 사상이 토지의 생산을 위주로 하는 호남의 현실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금은 그 자신이 학문을 하는 선비였으면서도 순수 농사에 참여해야 했던 생산자의 관점으로 주변 관계의 모순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는 향촌을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당대의 정치적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 즉 해금은 파당 정치로 일그러진 당대의 정치적 폐해를 어진 인재의 부족으로 지적하고 인재 등용의 방법으로 향공과 학교와 같은 향촌의 가장 말단의 기관의 활성화를 내세운 것이다. 한갓 잡류의 기술로 흘러가고 있는 당시 과거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품성에

3) <公道會議>, 「議」, 『해금집』 卷2.

4) <問均賦>, 「策」, 『해금집』 卷4.

5) 「王霸略」, 『해금집』 卷4.

6) 「湖南策」, 『해금집』 卷4.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이는 단순히 몇 가지 시험만으로는 어려우며 보다 밀착된 거리에서 세밀한 관찰이 가능한 향촌의 교육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금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 향촌의 가난한 지식인으로서 살아왔던 40여 년의 삶이 그 밑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해금의 개혁적인 사상은 소위 북학과라 일컬어지고 있는 近畿의 사상가들과는 달리 호남의 자연 환경과 정치적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속에서 그 모순을 발견하고, 이러한 모순들의 해결 방안을 통해 국가의 문제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作爲를 거부하는 生氣의 문학

해금의 문학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략하다. 따라서 그의 문집 속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몇 몇 발언을 통해 해금의 문학적 관점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 나라 이후에 이르러서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많기는 하나 역시 본색을 잃지 않았고, 진 나라와 당 나라의 다듬고 꾸미는 습관이 나온 뒤에 문장의 본체를 완전히 남김 없이 상실하였다. 지금 문장을 논하는 자들은 읽기 쉽고 알기 쉬운 것만 귀히 여겨 이따금 두리뭉실하게 기이하고 오묘한 글이 있을 경우 대뜸 괴상하다고 하면서 조소까지 한다. 대체로 지금 읽기 쉽고 알기 쉬운 것은 배우들이나 얘기하는 죽어버린 말에 불과하다. 어떻게 생기를 볼 수 있겠는가? 문체가 굳건하고 기이한 것이 참으로 본색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본받은 후인들은 그 기는 언지 못하고 말만 흠쳐내어 매우 괴이하고 보기 드문 글자들을 분류하여 모으고, 어렵고 험악한 구절을 엮어 놓고 하는 말이 “나는 고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유식한 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⁷⁾

7) 至於漢以後多有用意處而亦不失本色晉唐雕繪之習出然後文之本體全然蕪喪無餘今之論文者只貴易讀易知者而間有混然奇奧之文字則便稱詭鬼至贍於嘲笑夫今之易讀易知者不過爲俳優死談耳豈有生氣之可見哉文體健奇固已爲本色而後人之效嚙者不得氣徒竊其語類輯深惟稀

이 글은 『해금집』의 「漫筆」에 수록된 글이다. 여기서 해금은 의도적이거나, 일부러 다듬고 꾸미는 따위의 작위적인 글들을 문장의 본체를 잃은 글로 혹평하고 있다. 또한 거리의 광대들의 입에까지도 오르내릴 수 있는 관습적이고 쉬운 문장만을 다루려 하는 당대의 지식인들의 천박한 작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바로 ‘生氣’가 있는, 곧 시인의 성정이 겉으로 드러나 생동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좋은 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생기가 있는 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금은 ‘健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健奇가 시인의 뜻(意趣)이 들어 있는 내면적인 것이라면, 氣는 健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다고 하여 健奇를 표현하는 氣가 怪異한 것은 아니며 시인에 의해 창조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인들은 健奇를 怪로 잘못 알아 옛 문헌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글자와 구절을 엮은 것으로 자신들의 문장을 꾸미는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 예문에서 해금은 창조적인 표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문장가는 반드시 의취를 주로 삼는다. 예를 들면 고인이 언급하지 않은 곳 중 이치와 의리에 합하는 말을 천연적이고 혼연적으로 만들어 교묘하게 깎지 않는 것을 제1의 방법으로 삼는다. 그 다음은 고인이 언급한 것 중에서 당시에 항상 유행되지 않는 것을 골라 골자를 만든 다음 전환시켜 꾸미는 것을 제2의 칼자루로 삼는다.⁸⁾

見之字撰爲艱棘險僻之句而曰我能爲古文則其不爲有識者所笑乎(「만필」, 『해금집』 卷5, 939쪽.).

8) 文章家必以意趣爲主如古人說不到處合理合意之語天然渾然不犯巧鑿者爲第一方便其次則如古人所說到者揀其不常行於時者爲之骨子而轉據傳粉爲第二柄欄(「만필」, 『해금집』 卷5, 940쪽.).

고인의 문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해금은 의고적 작업에 크게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訓詁가 나온 뒤에 비로소 어습푸레 의미를 상상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없었으며…(중략)…『시경』의 작품에 이르면 여항 부녀자들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역시 훈고에 의지 하지 않고는 확실히 아는 자가 없다.”⁹⁾라는 그의 발언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금은 고인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고는 있으나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며 모사하는 형식주의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고인이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 그 방법을 먼저 찾고, 그것이 안 되면 설사 고인이 언급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유행되지 않는, 곧 거리의 광대까지도 희롱할 수 있는 관습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문장이 아닌 창조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인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는 어떤 시인가? 다음 글에서 좋은 시에 대한 해금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천기이다. 자연의 경취가 있으며, 자연의 음향이 있다. 읊조리고 다듬어 신장과 간장을 쫓아내도, 비록 교묘하게 조물주의 조화를 빼앗더라도 자연의 경취가 아닐 경우에는 시가 아니며, 비록 경취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음향이 아니면 시가 아니다.¹⁰⁾

해금은 ‘천기’의 시가 훌륭한 시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아무리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프게 할 만큼 감동을 주고, 그 시가 조물주의 조화를 깨뜨릴 만큼 오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의 경취와 음향을 갖추지 않

9) 獨賴訓詁之出然後始得彷彿猶未了悟…중략…至於詩經之作多出於閭巷婦孺之語而不待訓詁亦無神鮮者(「만필」, 『해금집』 卷5, 937~938쪽).

10) 詩天機也有自然之景趣有自然之音響當其吟嘯雕鏤琢出腎肝也雖巧奪天工而非自然之景趣則非詩也雖得其景趣而非自然之音響則非詩也(「만필」, 『해금집』 卷5, 946쪽).

있다면 그것은 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의 경취를 얻어 자연적인 음향으로 표현되는 시, 바로 ‘자연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시가 바로 천기의 시인 것이다. 천기는 앞에서 언급한 생기와도 통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천기의 시란 결국 인간 성정의 진실함이 표출된 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해금은 인간의 성정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보고 있는가?

성의 근원에 있어서는 만물이 하나의 성이지만 성이 각기 정해지면 만물이 각각 개성을 가지게 된다. 만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저마다 개성을 가진다.¹¹⁾

이 글에서 해금은 인간 성정의 다양한 양상을 인정하고 있다. 성의 근원인 道, 곧 진리는 하나이나 그것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성정을 회복하고 성의 근원에 이르는 길은 각기 발현된 것들에서부터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격물은 모름지기 일상 생활에서 가장 비근한 일부터 궁구해 나가야 의거할 데가 있다”¹²⁾라는 말로 해금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금에게 있어 ‘일상 생활의 가장 비근한 일’이 이루어졌던 삶의 현장은 바로 해남과 나주라는 남쪽의 향촌 마을인 것이다. 그 일상에서 해금은 인간의 성정을 훼손하는 모순을 발견하였으며, 향촌 지식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갖게 된 것이다.

Ⅲ. 해금시의 현실적 경향

1. 향촌 지식인의 소외 의식 표출

11) 性之源則萬物一性也性之各定則萬物各一性也非徒萬物爲然人人各一性(〈平日自得〉, 『만필』, 『해금집』 卷5, 1019쪽.).

12) 格物須自日用至切近處窮去方有依據處(위의 책, 같은 쪽.).

조선 후기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서울이 정치의 중심지이자 유통 경제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팽창과 함께 전 사회적으로 ‘서울을 높이고 향촌을 낮추어 보는 풍조(貴京賤鄉之風)’가 팽배해지면서 서울과 향촌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京鄉의 사회적 分岐가 나타나게 된다.¹³⁾ 한편, 이러한 가운데 서울을 주된 생활 공간으로 하는 양반 가문인 소위 京華士族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조선 후기는 이러한 소수의 경화시족과 闕闕들에 의한 권력의 독점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대다수 사대부 집단을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만들었다. 반면 서울과 그 주변 도시의 경제적 변화함과 동질적 사대부 집단의 문화적 활력은 기타 지역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향촌의 지식인들과 차별화된 문화를 형성하였다.¹⁴⁾ 결국 오랫동안 소외 받았던 향촌사족들이 중앙 정치에 참여하기란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향촌과 서울 사이의 괴리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今日遽然又夕暉	오늘도 어느새 또 석양이 지는데
坐看林樹暮烟圍	수풀에 앉으니 저녁 연기 에워싸네
窮門客厚飯飡瘦	궁한 집에 손이 많아 음식 부족한데
古澤波明月色肥	옛 못은 파도 맑아 달빛도 풍성하구나
書劔天教吾輩得	하늘은 우리에게 문무를 얻도록 하였고
江山地許別人歸	땅은 다른 사람에게 강산 돌아가는 것 허용했네
呼兒強借東隣釀	아이 불러 동쪽 이웃의 술 가져오게 시켰더니
前債尋常却見揮	별 것 아닌 외상값에 거절을 당했다오 ¹⁵⁾

석양에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달빛이 연못을 비추는 마을의 경

13) 유봉학, 『조선 후기 학계와 지식인』(신구문화사, 1998), 114~115쪽.
 14)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소명출판, 1999), 24쪽.
 15) <漫詠>, 『해금집』 卷1, 228쪽.

치는 참으로 풍요롭고 평화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해금에게 이러한 마을 풍경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 해금은 오랜 학문적 경륜을 쌓은 학자이지만, 정작 그의 사회적 지위는 ‘별 것 아닌 외상값’을 갚을 능력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가난한 시골 선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해금의 빈곤한 살림은 그가 출사한 다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듯하다. 다음 시를 보자.

離家一月未逢書	집 떠난 지 한 달 편지 보지 못하니
消息天涯正自疎	하늘 끝 소식 스스로 멀어지네
白髮空羞從事鏡	백발은 부질없이 종사경에 부끄럽고
紅塵誤染老萊裾	세상 먼지 노래자 옷자락을 잘못 더럽히네
四年兒矜啼朝飯	네 살 난 아이는 불쌍히 아침밥에 울고
八慶親愁倚暮閭	팔순 된 아버지는 수심 속에 해질녘 문에 기대어있네
更憶瘦妻薪水病	또 다시 생각난다 끼니 걱정하는 수척한 아내
幾迴終日繞殘廬	온종일 몇 번이나 허물어진 집 주위를 서성일까 ¹⁶⁾

宦路에 오른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도 이 시에서는 며슬살이를 시작하는 관료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방 출신의 가난한 말단 관료의 신분으로서의 가족과 함께 하는 서울 생활은 꿈꿀 수도 없다. 그러니 “며슬을 한 것은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아버지가 늙고 집이 가난하여, 요행히 재물을 얻어 한번이라도 영화롭게 봉양하기 위한 계책”¹⁷⁾이라는 말을 누누이 강조했던 해금으로서는 남쪽에 두고 온 가족에게 향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출사가 향촌 지식인으로서의 입신양명은 이루었을망정 해금 가족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 한 자락을 항상 가족들에게 드리워 놓고 있는 해금에게 서울은

16) <客中遺懷>, 『해금집』 卷1, 230~231쪽.

17) 今來筮仕非敢爲身謀只以親老家貧僂倖才廩爲一時榮養之計(「가장」, 『해금집』 卷1, 96쪽)..

항상 낮은 곳일 뿐이고, 그곳에서 그는 언제나 손님이다. 서울 생활 중에 읍은 많은 시들에서 해금은 한결같이 그 자신을 서울을 찾은 客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한 방편으로 시작한 해금의 관료 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오랫동안 지방에서 생활한 탓에 중앙 정계에 특별한 연고도 없었고, 향촌에서도 이름난 학자와 사승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금의 정치적 관계망은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과거를 응시할 때부터 “사사로운 패거리로 뭉쳐 노소남북이 나누어지거나”¹⁸⁾, 그도 못하면 유명한 가문의 여식을 소실이라도 들여 외척에 기댈으로써 기반이 약하고 지체가 약한 향촌 지식인의 관직 진출을 피해야 하는 혼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금은 그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정치적 체의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우리 집안은 몇 대 동안 남쪽에 살아 왔으므로 입신양명 하기는 이미 멀어진 일이요.”¹⁹⁾라는 해금의 발언에서 그가 자신의 정치적 신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한 해금의 관료 생활은 고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가 느끼는 서울 생활은 향촌의 출신의 가난한 관료에게는 너무 냉정했을 터였다.

楊柳千行泮水頭	반수가 버드나무 즐비하게 서 있으니
淺黃深綠自風流	연한 노랑 짙은 초록 저절로 풍류 이네
未需惡實登華屋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 부잣집에 올라와 있고
虛放繁陰覆御溝	헛되게도 무성한 나무 그늘 대궐 도랑 덮었네
早發偏能承暖德	일찍이 잎이 피어 온기를 받고
先零端不媚新秋	가을 전에 잎이 져서 자태를 뽐내지 않았지
憐渠亦向鄉人薄	가련하다 저 역시 시골 사람 박대하니
鮮惜長條贈去留	오갈 때 긴 가지 주는 이 애석히도 드물구나 ²⁰⁾

18) 一榜諸人扨後四散私自團結謂以老少南北判於是(〈上宰相書俞相拓基〉, 『書』, 『해금집』 卷 2, 410쪽.).

19) 余曰家世南居立揚已遠(『만필』, 『해금집』 卷5, 967쪽.).

해금과 같이 한미한 시골 출신 관료는 출입할 수 없는 어느 부잣집 담장 너머로 맛있는 열매가 열린 나무가 보인다. 그러나 이 열매는 보는 것으로만 족할 뿐, 그 집을 출입하기 어려운 해금은 맛 볼 수 없는 ‘惡實’이다. 그러니 무성하지만 헛될 뿐이다. 이렇게 인색한 서울 인심은 해금에게 그 자신이 시골의 가난한 선비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따라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흔한 버드나무 한 가지를 꺾어 따뜻하게 배웁해 줄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해금에게 길가에 즐비하게 서있는 버드나무조차 마치 그 자신을 시골 사람이라 차별하는 것만 같은 것이다.

비록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앞의 시를 통해 해금의 고단한 서울살이의 상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니 서울에서 교유 생활이 잘 이루어졌을 리도 없고, 고향에서 사귀었던 벗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客味無時足	나그네 마음 흡족할 때 없는데
秋光近欲貧	가을빛 요사이 시들려고 하는구나
遷延楓菊日	단풍 국화 그날은 어느덧 지나가고
慄慄雪霜辰	서리 눈 내리는 싸늘한 때로구나
淸世多名士	깨끗한 세상에는 명사들이 많고
窮途儻故人	궁한 길에는 홀연히 옛 친구뿐이라네
一燈遙夜夢	한 등불 아래 긴 밤 꿈 속에서
時放兩眉伸	때로 즐거이 두 눈썹을 편다오 ²¹⁾

객지의 외로운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는데 계절마저 햇벌이 따스한 날은 다 지나고, 찬 서리 내리는 겨울이다. 세상의 혼탁함을 은근히 질타하고 있는 경련의 첫 수에 이르면 해금이 느끼는 세상의 온기는 더욱 차갑기만

20) <泮柳>, 『해금집』 卷1, 232쪽.

21) <旅夜呼韻>, 『해금집』 卷1, 141~142쪽.

하다. 비록 벼슬을 하고 있지만 처지가 궁했을 때 해금이 진심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처지의 옛 친구들뿐인 것이다.

옛 시절에 대한 향수와 지인들에 대한 그리움은 미련에 절실히 드러나 있다. 해금은 그가 속하기를 원하는 곳과 현실에서 허락되지 않은 거리를 꿈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꿈속에서 옛 벗들을 만나 오랫동안 찡그리고 있었을 미간을 펴고 흐뭇하게 미소 짓는 해금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그리워하고 원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원할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정서적으로 속하고자 하는 ‘그곳’인가, 아니면 명분 때문에 머물러야 하는 ‘이곳’인가? 해금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 자신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벼슬길에 나섰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금은 세상을 경영할 뜻을 품고 40여 년 동안 치열한 자기 연마와 고행의 수련 과정을 거친 학자[士]였다. 비록 미관말직일망정 이제 겨우 그 축적된 학문을 실현시킬 수 있는 관료[大夫]가 되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쉽게 귀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垂門高臥客懷春	문 닫고 길게 누우니 객의 마음 설레고
一病招閒餘事慵	한 번의 병 한가함을 불러 남은 일 게을리지네
宮樹聲傳春意動	궁의 나무 소리 봄 소식을 전하고
旅燈光許故人逢	여관의 등잔불 옛 친구 만남을 허락했네
分時酒末三盃醉	짧은 사이 석 잔 전에 미리 취하고
行處雲應萬里容	가는 곳의 구름은 만 리의 모습 응해주네
歸去南湖如有問	남쪽으로 돌아가 묻는 이가 있거든
勿云寒榻作詩愁	찬 자리에서 시 짓는 일 어리석다 말 마오 ²²⁾

비록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고단하고 외로운 생활로 해금은

22) <泮村病臥喜鄭上舍樹之來訪>, 『해금집』 卷1, 275~276쪽.

병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몸이 아프다보니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때 찾아오는 벗은 눈물겹게 고마운 법이다. 그러나 그 벗이 고맙고 반가운 것도 잠시, 해금은 여전히 궁핍함을 벗지 못한 그의 소식이 고향으로 알려질까 걱정을 한다. 아직 채 봄이 오지 않았으니 따뜻한 봄이 필요했을 텐데 냉랭한 방에서 지내다 병이 난 몸을 감추고 싶은 것이다. 이는 가난한 향촌 지식인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自存이었을 것이다. 홀로 객지에 나와 병이 났으면서도 가족에게는 애써 감추고 싶어 하는 해금의 모습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 자연 경물의 사실적 제시

40여 년을 향촌에서 보냈던 해금에게 자연은 그가 꿈꾸는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그의 일상과 강하게 밀착된 매우 소박한 공간이다.

岸透沙積自成洲	굽은 강가 모래 쌓여 삼각주 이루어지고
江影浦雲盡日悠	강에 비친 포구의 구름 온종일 여유롭네
如得此間終老計	여기에서 마침내 노년 계획 얻는 듯하니
不須跨海到蓬丘	바다 건너 봉래산을 갈 것이 뭐가 있나 ²³⁾

綠池蘆分雪	푸른 연못 갈대꽃 눈처럼 흩어지고
丹崖菊散金	붉은 절벽 국화꽃 황금을 뿌려 놓은 듯
烟波萬里濶	뿌연 파도 만리나 드넓으니
要識白鷗心	하얀 갈매기 심사를 알 것도 같구나 ²⁴⁾

첫 번째 시는 해금의 <漢江入詠> 중 네 번째 작품이고, 다음은 16세기

23) <漢江八詠>, 『해금집』 卷1, 208쪽.

24) <題江亭>, 『국역주해 송천집』(장산재, 1988), 9쪽.

에 활동했던 松川 梁應鼎의 작품이다. 두 편의 시는 모두 자연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표현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송천의 시에서는 파란색과 흰색, 붉은색과 노란색이 선명한 색채의 대비를 이루면서 공간을 화려하게 채색하고 있다. 송천은 황금을 뿌려 놓은 듯한 국화, 훑날리는 눈같은 갈대 등과 같이 대비되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송천의 시를 채색화에 비유한다면, 해금의 시는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담채화 같다. 어떠한 색채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감정의 열정적인 고조도 드러나 있지 않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과장이나 왜곡 없이 사실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전구와 결구의 시구로 말미암아 해금이 일상의 자연 경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해금의 자연은 송천의 자연만큼 완벽한 구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멋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그 소박함과 분방함 속에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눈 앞에 보이는 실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해금의 정신은 자연의 상태에 가하는 인위적인 조작에 매우 비판적이다.

江山隨處費經營	강산 이르는 곳마다 집을 지으니
滿目亭臺半毀成	눈 앞에 정자 반은 헐리거나 지어졌네
獨愛沙頭方面石	다만 백사장 네모진 돌 사랑할 만하니
超然不受世人名	초연히 세인의 지명을 받지 않아서라네 ²⁵⁾

사람들은 너도나도 좋은 경치를 찾아 멋들어진 정자를 앉히려 하고, 아름다움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요란스러운 조작을 가한다. 그러나 해금이 보기에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해금은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찾을 것을

25) <見夢烏亭太古亭判事亭角巾亭或毀或餘遺址而或新構他亭>, 『해금집』 卷1, 204쪽.

권고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 그것이 있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강 머리의 돌을 예찬한 절구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관념화되고 이상화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해금의 생활 태도는 이제 16세기 사대부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自愛清溪濯足游	맑은 시내 좋아 발을 씻고 노닐다가
有時登岸東荊莽	때로는 언덕에 올라 가시나무를 묶었다오
歸來煮石黃昏裏	황혼녘에 돌아와 백석을 달이니
山雨初晴月一釜	산에 비 처음 개자 한 솥에 달 가득 ²⁶⁾

이 시를 통해 해금이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멀리 떨어져서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점잖은 ‘완상의 즐거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불쏘시개를 위해 잡목을 얻을 수 있는 생산지이며, 그 행위를 하는 주체 역시 奴僕이 아닌 해금 자신이다. 비록 논농사나 밭농사 같은 적극적인 노동행위는 아니지만, 여느 촌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일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해금의 모습이 미약하게나마 그려지고 있다.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자신을 형상화시킨 해금의 한시는 16세기 고고한 사대부의 한시와는 확실히 다른 면모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그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3. 일상 체험의 구체적 형상화

현실에 대한 직시와 객관적인 관찰은 대의명분에 가려져 소홀히 했던

26) <山居卽事>, 『해금집』 卷1, 192쪽.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江浦殷雷震蟄居	포구의 우레 소리 깊은 잠을 흔드니
村郊隨處鬧群蛙	마을 곳곳에 못 개구리 시끄럽네
句池曲岸跳梁樂	웅덩이나 언덕에서 날뛰고 즐기며
竟日終宵長短歌	은종일 밤늦도록 노래를 부르네
風靜熱喧開遠市	바람 고요한데 시끌시끌 먼 곳에 저자 열리고
月明清吹隱殘笳	달 밝으니 맑게 불어 가는 피리소리 감추네
須教盡意鳴春雨	꼭 뜻을 다해 봄비에 울어
與占豐年報國家	풍년을 점쳐 국가에 보답해라 ²⁷⁾

平生蚊蠅自深畏	평생 동안 모기를 심히 두려워했지만
未若蚊蟲擾我神	이 벌레처럼 내 정신을 혼란하게 한 것은 없었네
低室隨溫誇得意	방안 따뜻한 곳에서 얻은 뜻을 자랑하고
缺樽窺酒忘投身	술동이 틈새로 엿보다 몸이 빠지는 줄 모르네
乍欣日暗歸休靜	날 어둡자 돌아가서 조용히 쉬는 것 잠깐 기쁘더니
旋嫉燈明鼓舞新	등불 밝히자 새로 춤추는 것 도리어 밋구나
最是暇開文墨戲	이 한가로움을 열어 문묵을 즐기기에 좋으니
誰相呼起一時屯	누가 서로 불러 한 때에 모이는 것을 일으켰는가 ²⁸⁾

우선 이들 작품의 소재로 쓰인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파리는 사대부 한 시에서는 매우 드물게 쓰이는 소재이다. 조선 전기에 지어진 한시는 사대부의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거나, 사대부로서의 자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 사대부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양반의 계층 또한 분화를 일으키면서 한시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한 분화의 한 양상을 해금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작품은 잠을 깨울 만큼 큰 우레 소리, 밤낮으로 우는 개구리의

27) <聽蛙鳴>, 『해금집』 卷1, 225쪽.

28) <憎蠅>, 『해금집』 卷1, 226쪽.

시끄러운 울음소리 등이 한 데 어우러져 큰 시장이 열린 듯 매우 어수선하고 요란스럽다. 봄비가 쏟아지기 직전이라 대기도 녹녹한데 그나마 이루어던 잠도 우레 소리 때문에 깨고, 게다가 시끄러운 개구리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더욱 잠들기를 포기해 버린 향촌에서의 해금의 일상이 눈앞에 생큼 다가온 듯하다.

첫 번째 작품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졌다면, 두 번째 작품은 파리가 날아다니는 동선을 따라 시선을 이동시키며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어느 여름날 한 마리의 파리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날아다니며, 이런 파리를 쫓으며 귀찮아 어쩔 줄 몰라 하는 해금의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다. 특히 술 냄새를 맡고 술동이에 빠지는 함련의 표현은 조선 후기 사설시조 한 편을 연상시킬 만큼 해학적이고 유쾌하다. 파리를 쫓고 있는 해금의 모습은 근엄한 사대부 양반의 모습보다는 나무를 하고 물을 길는 촌부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

이들 시는 세련되고 도회적이라기보다는 토속적이며, 향토적이다. 또한 어떤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계산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다. 봄이나 여름, 시골이라면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며, 그 순간 일어나는 감흥을 그대로 읊었을 뿐이다. 그 표현도 추상적인 어휘의 나열이 아닌 지금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한편, 이들 시에 그려진 경험은 일상적이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오히려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단지 상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촌 생활의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포착될 수 없는 시들이다. 이렇게 해금시의 공간은 일상 생활의 공간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가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경험된 일상이 시어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시에서 발견되는 일상성과 토속성은 사대부적 감성의 구현체로서 다소 격식적이고 경직된 장르였던 한시가 그 무거움을 덜어 내고, 개인적 감성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개방적이

고 가벼운 장르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오달운의 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호남 지역 한시의 현실주의적 성향의 형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47년의 삶을 산 해금은 40여년을 해남과 나주에서 생활하였다. 이때 그가 경험했던 향촌 생활과 사회적 모순은 해금의 개혁적 의식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으며, 개성적 문학관을 갖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해금집』에는 총 210수의 한시가 실려 있는데, 이들 시를 살펴보면 우선 향촌 지식인으로서의 소외 의식이 눈에 띈다. 궁핍한 가정 환경, 늦은 출사와 한미한 가문으로 인한 서울 생활의 외로움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 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향촌 지식인으로서 자존을 지키려는 기색이 역력하나 고단한 현실 때문에 더욱 궁색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해금의 시는 자연 경물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자신이 생계를 위해 생산에 참여해야 했던 몰락한 양반으로서, 해금에게 자연은 사유와 완상을 위한 이상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찰은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자연을 생산의 현장으로 보여주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해금은 그의 시에서 일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진술 대신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구체적 현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소재 또한 향토적이고 토속적이어서 16세기 사대부들의 시와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 해금의 시는 개혁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시 의식이 호남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금은 비록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사회적 신분이 한미한 향촌 지

식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숨쉬고 있는 삶의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러한 시를 생산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금의 시들은 그와 비슷한 사회적 신분과 경험을 갖고 있는 향촌 지식인들이 사회적 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 창작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시 창작 태도와 그 작품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18세기 호남 지역 시문학의 특징을 밝히는 데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 C I

참고문헌

- 『국역 해금오달운문집』, 을지출판공사, 1993.
『국역주해 송천집』, 장산재, 1988.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김승현, 「해금 오달운의 철학과 경제사상」, 『공자학 7』, 한국공자학회, 2000.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안진오, 『호남유학의 탐구』, 이회, 1996.
오종일, 「조선조 후기 실학의 근대적 대응」, 『동양철학연구 20』, 동양철학연구회, 1999.
오종일, 「해금 오달운의 실학사상」, 『한국사상논문선집 234』, 불함문화사, 2001.
원유한, 「해금 오달운의 화폐경제론」, 『하석 김창수교수 정년 기념 논총』, 1997.
유봉학, 『조선 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이해준, 「관 주도 지방지배의 심층화」,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진재교,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투고일 : 2006. 1. 9.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stic tendency of Haegueum O-Dalun's Chinese poetry

Park, Se-in

Haegueum O-Dalun experienced the country life in Haenam and NaJu for about 40 years, which made both his individual literary theory and reformatory thought. Haegueum's literary theory is thoroughly expressed in his realistic poems.

First of all, I could realize that even though Haegueum had strived to maintain self-respect as a country scholar, he should feel a sense of alienation as getting his life worse due to exhausting living through 『Haegueumjip』 (海錦集), included 210 Chinese poems.

Furthermore, Haegueum illustrated the scenery of nature realistically in his poems. Haegueum regarded nature as not ideal place but that for daily life without any manipulation. This objective and cold-headed observation had an effect on his recognition that nature would be the actual spot of production.

Last, Haegueum wrote specific poems with ordinary experience. In other words, Haegueum not only treated particular scenes instead of ideal and abstract statement, but also expressed different sides from poems of common noble men in the 16th century owing to his folk material of poems.

To sum up, I could estimate that country scholars lived in Honam would have been active enough to contain contemporary social atmosphere as well as would have independently developed realistic

academic tradition in the late Chosun by studying characteristics of Haegeum poetry.

Keywords : realistic poems, Haegeumjip, country scholar, self-respect, alienation, ordinary experience, folk material of poems

K C I